

사진예술의 아름다운 향기 선물

포천사진연구회 제8회 정기회원전 성료

포천사진연구회(회장 박병선)는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포천반월아트홀 1층 전시장에서 개최했다.

1998년 창립한 포천사진연구회는 매년 정기회원전을 마련하고 있으며 11월20일 제8회 정기회원전 개막식에는 박운국 포천시장, 김영자 포천시의회 의원 등 내빈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박병선 포천사진연구회장은 "사진예술은 자신만의 시각으로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어 우리들의 생활에 널리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가 사진을 사랑하는 지역의 수많은 동호인들이 동참하는 문화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사진전시회는 포천시가 시대적 흐름을 함께 하고 있음을 말하며 포천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지역예술 발전에 뜨거운 애정을 갖고 전시회 개최를 위해 정성을 다해주시는 박병선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심오한 창작의 예술"이라며 "그 동안 사진예술의 심오한 경지를 엿보이기 위해 꾸준히 정진해 온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포천사진연구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한다"며 축하했다.

제8회 정기회원전을 개최한 포천사진연구회 임원 및 회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0임원 0회장 박병선 0고문 이만구 0총무간사 이성숙 0지도위원 김현주 0사업간사 김태현 0감사 이규춘0회원 0대인 0김해웅 0이성호 0송진복 0권순성 0안수현 0김정훈 0김영호 0김효 0강동희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사진연구회는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포천반월아트홀 1층 전시장에서 개최했다.



포천향교와 유도회포천시지부가 주최하고 포천청년유도회와 포천여성유도회가 주관한 제6회 기로연 시연이 지난 23일 유림회관에서 진행했다.

제6회 기로연 시연행사 가져

옛날 기로연의 형식과 방법으로 어르신 대접

포천향교와 유도회포천시지부가 주최하고 포천청년유도회와 포천여성유도회가 주관한 제6회 기로연 시연이 지난 23일 유림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제1부 기념식으로 문묘배례에 이어 윤리선언문 낭독, 포천향교 전교의 인사말, 유도회 포천시지부장의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제2부에서는 초청원로 소개와 상견례, 박산강구 강승, 선시낭독, 노인단체에 이어 민요창 등으로 진행됐다.

황노(기로연)는 조선시대 태조 4년(1395년)부터 기로소가 설치되고 있는데 70만 달리인데 물론 캐를 단 한 곡 만으로의 수입은 아니었지만 매년 들어오는 그 돈은 가히 후손들이 배수 생활하며 평생 즐길 수 있는 액수다.

황노(기로)란 나이가 많고 덕이 두텁다는 뜻을 지니 나이가 70세가 되면 황(기)라 하고 80세가 되면 노(노)라 했다.

원래 기로연이란 국가에서 치르던 큰 잔치였다. 이번 유림회관에서 시연된 기로연은 국비와 도비, 시비 등으로 옛날 기로연의 형식과 방법으로 경로연이란 이름으로 진행됐다.

정지용 포천향교 전교는 인사말을 통해 "주인(主賓)으로 초대받은 유림원로들께서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윤리의 부식(扶植)과 도덕의 실천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유림들이 주체가 되어 윤리의 회생과 도덕성 실천을 위해 온 힘을 함께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윤우 상군관 유도회 포천지회장은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송을 받아 왔음에도 인륜으로 신하들에게 처음 잔치를 베풀어 주었었다"면서 "이번 경로연 행사를 통해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미풍양속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승민 기자 forme65@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84

임진왜란과 민족의 쫓기(2)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의병을 일으킨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광재우(郭爾祐)는 으뜸가는 명장이었다.

그는 여러 번의 싸움에서 한번도 진 일이 없었으므로 역사가 기록하기를, "군사 쓰는 데 귀신 같아서, 위엄이 세 나라에 떨쳤다"고 하였다.

광재우는 항상 붉은 옷을 입고 싸웠는데, 그 옷은 처녀의 첫 번 월경피로 물들어 만든 것이어서 순수한 음기가 능히 철환을 막았으며, 또한 그의 전법이 신숙하여,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실로 변화무쌍하였다. 그리하여 왜군 장졸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었다. 그로부터 그는 "천강 홍의 장군"이라고 불리었다.

그의 신기묘산은 실로 측량기 어려웠다. 그는 군사들에게 저마다 바가지 한 개씩을 차고 다니게 하여 그것으로 물도 때 마시고 밥도 담아 먹게 하였는데, 한 번은 무쇠로 바자기를 만들어 갖고 다니다가 싸움을 끝내고 돌아갈 때 길에 버려 두었다. 왜병이 그곳에 이르러 물고 배근이 나 되는 바자기를 보고, 그런 무거운 바자기를 하나씩 차고도 나는 듯이 돌아다니는 홍의장군의 군사들은 실로 귀신인가 보다 하였다.

그리고 또 한번은 옷깃을 한 관 속에 벌 몇 통을 담아 버려 두었다. 왜병들이 다투어 보물이나 들었는가 하고 열어보니, 난 데없는 벌떼가 터져 나와 전 군

중을 요란케 하였다. 그 뒤에 또 그런 관을 버리자 별로만 알고 왜군이 불 속에 집어 던졌다가 폭발하여 일개 부대가 온통 몰살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광재우의 이름은 적병들은 물론, 울던 어린이들까지 울음을 그칠 정도로 무서운 대명사가 되었다. 아직도 우는 어린이를 달랠 때, "아가 광재우 온다, 광재우!" 하던 말에서 연유된 것이라 한다.

그는 난리가 끝난 뒤,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도 사양하고 지리산속으로 들어가서 도를 닦다가 신선이 되었다 한다.

황해도 지역이 왜병의 약탈하에 있을 때, 고군(孤軍)으로 연안성을 지키어 대첩의 공을 세운 이는 초토사(招討使) 이장암이었다.

그는 연안성에서 패잔한 군졸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늘에 맹세한 뒤, 대거 쇄도하는

왜병을 맞아, 조금도 겁내지 않고 탄환이 비오듯하는 곳을 뚫고 앞장서서 사졸을 독려하며 싸웠다.

"내장이 몸을 아끼지 않는데, 우리가 여겨 살기를 바라리오!" 하며 사졸들은 모두 용전하였으므로,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의 두 번이나 돌격해오는 군대를 격퇴시키고, 성을 지켜 냈다.

그런데 행재소에 보고 할 때는, "아무 날 적병이 쳐들어왔다가 아무 날 물러갔습니다"하였을 뿐, 싸움이 이겼다는 말을 쓰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싸움에 이긴 것보다도, 그가 공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더욱 가상하다고 여겼다.

경상 좌병사 박진(朴震)은 회을 밀양에서 싸워 패하였으나 평양이 회복되고 명군이 남하한다는 소문을 듣고 민병 수천 명을 다시 모집하여 경주성을 쳤다.

그 때 그의 비장 이장손(李長孫)이 진천뢰포(震天雷砲)라는 화포를 만들어 사용하자 그 위엄이 내리는 벼슬도 사양하고 지리산속으로 들어가서 도를 닦다가 신선이 되었다 한다.

황해도 지역이 왜병의 약탈하에 있을 때, 고군(孤軍)으로 연안성을 지키어 대첩의 공을 세운 이는 초토사(招討使) 이장암이었다. 그는 연안성에서 패잔한 군졸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늘에 맹세한 뒤, 대거 쇄도하는

<다음호에 계속>

죽어서도 돈을 버는 뮤지컬 작곡가Ⅱ, 어빙 벌린(Irving Berlin, 1888~1989)

영화 <아바타 어 보이(About a Boy)>에서 주인공 휴 그랜트는 아버지의 유산으로 백수 생활을 하는 남자다. 30대 후반의 휴 그랜트는 독신으로 살며 여자와는 관계가 없는 것 이상을 바라지 않는 미성숙한 아이 같은 남자다 그려지고 있다.

그런 그가 우울증에 시달리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소년을 만나면서 성숙해져 가는데 그 혼 혼한 영화가 <아바타 어 보이(About a Boy)>다. 영화 속에서 휴 그랜트는 상속받은 유산으로 호화로운 백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유산이라는 것이 바로 '신타의 수퍼 셀레'라는 캐롤 저작권이다.

아버지가 남긴 캐롤 한 곡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설정이 마치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작곡가 어빙 벌린(Irving Berlin)을 보면 틀림없는 사실이다. 1911년에 '알렉산더스 래그타임 밴드(Alexander's Ragtime Band)'라는 곡을 작곡하여 미국 대중문화를 바꿔놓은 어빙 벌린(Irving Berlin)은 1942년에 유명한 캐롤 '화이트 크리스마스(White Christmas)'를 작곡했는데 이 한 곡에 대한 로열티는 상당한 액수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어빙 벌린은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가

발표한 2004년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죽은 사람들(Dead Celebrities The Top Earners)' 8위에 선정되었다. 그 액수는 10위를 기록한 리처드 로저스보다 50만 달러나 많은 700만 달러인데 물론 캐롤 단 한 곡 만으로의 수입은 아니었지만 매년 들어오는 그 돈은 가히 후손들이 배수 생활하며 평생 즐길 수 있는 액수다.

캐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이미 수천만장 이상의 음반이 팔렸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도 매년 연말이면 어김없이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나 거리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어빙 벌린이 작곡한 또 하나의 대중적인 곡 '갓 블레스 아메리카'는 미국의 국가적인 중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연주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911 사건 이후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전쟁목적용 합리화시키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갓 블레스 아메리카'를 자주 사용했는데 공식적인 행사나 메이저리그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물리는 곳에서 울려 퍼지게 했으며 이때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서 경의를 표했다고 한다. 물론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벌어들이는 액수(4,000만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우리가 음악사용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고 CD나 DVD를

구입하는 돈의 일부가 어빙 벌린이 남긴 유산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어빙 벌린은 미국 대중음악사상 최고의 작곡가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3천곡이 넘는 그가 남긴 음악은 전 세계 어느 작곡가가 남긴 음악보다도 많은 숫자이며 히트곡 숫자만으로도 최고의 작곡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개별적인 음악을 주로 작곡했지만 17편의 필름 스코어를 남겼으며 21곡의 브로드웨이를 위한 스코어도 남겼다.

특히 1946년에 <애니여 흥을 잡아라(Annie Get Your Gun)>를 발표하여 뮤지컬 무대를 위한 명작 레퍼토리 하나를 선사했다. 이 뮤지컬도 많은 곡들이 히트했는데 특히 '쇼 비즈니스 같은 비즈니스는 없다(There's No Business Like Show Business)', '내가 결혼하게 되는 소녀(The Girl That I Married)', '나 역시 인디언(I'm an Indian, Too)' 등이 유명하다.

1940년대에 어빙 벌린은 여러 편의 뮤지컬 영화를 위해 스코어를 작곡했는데 모두가 명작의 대열에 드는 성공적인 작품들이었으며 어빙 벌린을 뮤지컬 영화 작곡가로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White Christmas)'가 들어있는 영화 <홀리데이 인(Holiday Inn)>도 이 시

기에 나왔다. 무대를 위해서는 모두 세 곡의 뮤지컬을 작곡했는데 <애니여 흥을 잡아라>이외에 <미스 리버티(Miss Liberty)>를 1949년에 발표했으며 전쟁 중에는 병사들을 위해 위문공연단을 결성하고 수많은 전령터를 오가며 <디스 이즈 디 아미비(This is the Army)>를 공연했다. 어빙 벌린의 애국심은 상당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나이가 많아 군인이 되지 않는 뜻하고 애국적인 노래들을 작곡하여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 그의 위문 공연 <디스 이즈 디 아미비(This is the Army)>는 영국,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등 각 바지의 치열한 전투로 공성이 잦은 곳에서도 강행되었으며 중동과 태평양 전선에까지 가서 공연되었다. 전쟁 후에 어빙 벌린은 그 공로로 미국의 투르만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다.

1940년대는 어빙 벌린의 작곡 인생에 있어서 최절정의 시기였으며 최고의 곡들이 쏟아져 나온 시기로 평가된다.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자유기고

시와 음악과 낭만

역시 시는 아름다운 것이며 인생이며 사랑이다. 모든 이의 심금을 흔드는 주옥같은 마력의 언어였다.

흐르는 음악 선율과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함께 승화되어 잠시나마 인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공간이 울해도 포천문화원 주회로 '시민(市民)과 시(時)가 어울릴 때'라는 컨셉으로 두 번째 가족시 낭송대회가 여성회관에서 열렸다.

말의 연합고사자 임박한 시가였지만 주위의 권유와 어쩔 내년에는 참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아쉬움에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 참가했다. 참가팀은 모두 16개 팀이었으며 진행은 작년과 비슷하게 경연시 낭송 시사이사이 내빈 축하시 낭송과 문화원 기타동아리 반의 정겨운 노래 화음이 곁들여 졌다.

경연 시는 기성작가 작품으로 제한되었으며 선택한 시의 장르가 작년에 비해 다양해 졌지만 누구나 살면서 그 시에 심취해 한 두번 읊조려 봤을지라도 그리

운 시들이 많았다. 온가족, 부부, 모녀, 부녀, 자매, 시누울게, 사촌지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열린 경연을 벌였지만 최선을 다하는 경쟁만큼이나 가족의 사랑과 화합이 진하게 배어나와 듣고 보는 청중의 마음을 흥분하고 부드럽게 하여 분위기를 좋게 하는 시, 정겨운 시를 함께 하는 즐거움과 나름대로의 낭만이 독특할 줄 어지는 한마당이였다.

또한 주최측의 세심한 준비와 배려 직접 만든 멋진 다과와 차림상은 대회의 격을 높였을 뿐더러 자라한 모든 이에게 미각의 즐거움도 선사했다.

부군의 대금연주에 고운 한복을 입고 조지훈님의 승무를 낭송하신 부부 팀의 모습은 한 폭의 시화 같았으며, 대상을 수상한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네다'를 들을 땐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한 전율이 솟는 감동을 받기도 했다. 심사 집계 중에 평소 애송하는 시를 낭송하실 분 신청을 받았는데 시 대신 창을 해서 대회를 잠시 경축 분위기로 만들기도 했지만 그 또한

인생의 한 생활 시가 아닌가 싶었다.



김기호 부평역사연구소

축하시를 낭송 해 주신내빈 여러분, 나름대로 오랜 인생과 경륜이 폭폭 늘어나는 음성과 감성으로 대단한 열기를 뽐내시고는 계면적은 듯 조금은 긴장되었던 듯 상기된 얼굴에 순수한 시인의 동인(童顔)이 되셨던 여러분의 모습은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시를 읽으면서 서로간의 어려움을 풀고 이해하여 마음의 화합이 되면 소중한 정말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마음이 시심처럼 맑아져 아름답고 애뜻한 가족사경기도 대한민국 어느 가족이나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가족시 낭송 경연 대회로 오래도록 계승 발전되어 지역 문화동을 확고히 자리 매김 해 먼 훗날 내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 손녀 삼대가 마음과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서 시낭송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수필가 김창중의 <포천 이야기> (219)

병사공(兵使公) 류경선(柳敬先)

병사공은 지금의 함경도병마절도사(咸鏡道兵馬節度使) 즉, 함경남북은 육군의 군단장 격의 벼슬이지만 감사보다도 시장보다도 그 권한이 컸던 자리이다.

류경선대감은 병조판서를 제의하고는 실질적으로는 병권(兵權) 중의 최고의 군사권의 소유자인 지휘관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 하다.

류경선 병사공께서는 가산면 방축리에서 출생하신 순수한 포천인이셨으며 포천에 묻히신 무관이니며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함부에 받으셨던 명목민관(名目民官)이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착한 柳宗(류종)선생의 현손이며 증 호조참판 계운(繼運)의 자로 개국공신 류만수의 6세손이다. 명종8년(1556년) 관사별시(觀射別試)에 급제하여 낭장(명종11년) 도총부도사, 용천현감에 올랐는데 백성들이 못내 아쉬워 하는 가운데 임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한다.

이뿐이 아니었다. 명종17년 제주관관 명종19년 양산군수가 되어 6년간 선치(善治)를 하니 백성들의 존경과 칭송이 하늘을 찌를 듯 했다 한다.

선조2년에는 재용감침정(濟用監參正)이 되고 함성부서윤(咸城府庶尹) 지금의 서울특별시 부시장)의 임명이 되었다. 선조3년 영입군수 부임 직전, 변방 백성들을 청렴하고 어질게 선치할 경원부

사로 특별히 발탁되어 통정대부 로승차와 동시에 임명된 일도 있었다.

선조6년 충청수사가 되고 회령 부사에 임명되었으며(가선대부: 嘉善大夫) 이어서 북도병마절도사 되었다.

당시만 해도 함경북도에만 주 접경여진족 오랑캐들이 자주 침범하여 변방의 어진 백성들을 괴롭히던 시절이어서 북도병마절도사의 자리는 북방의 막중한 자리였다.

특히, 「가선대부(嘉善大夫)」는 종2품 품계로 당시관이었으며 무관의 최고 품계인 「통정대부(通政大夫)→절충장군(折衝將軍)」보다 한 등급 상위였다.

지금의 해군에 해당하는 충청수사도 역임하였으니 남이 얼마

나 나라를 위해 큰 인재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며 나라의 전조(銓曹:관리의 전형 즉, 임명전 사진 심의를 하는 관청)에서 청렴하고 근실한 인물을 발탁하는데 첫째로 뽑혔다는 점에서 그 인물됨을 알 수 있다.

선조8년 1575년 향년 57세로 별세하니 천성이 순미(天性 醇美)하고 효우(孝友)에 독실하며 사리(事理)에 밝았으며 공직(公職)에 임해서는 삼가고 근신(勤眞)하며 청렴결백하여 무관 중에서 도 절출(傑出)한 인물이라는 최고 평(評)이 역사의 인물임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6군단장을 역임하고 퇴역한 서경석 장군(육군:중장)도 방축리 출신이며 현대전술학에서 필수인 「전장감각(戰場感覺)」을 연구하여 고대 대학원에서 군사학박사를 하고있다. 자랑스럽다 아니 할 수 없다. 「명인의 고장에는 뒤를 이을 인물이 태어난다」는 전설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추진강산만상엽(秋盡江山滿霜葉)



양재창 전 포천향교 전교

晩秋霜降曉風清(만추상강효풍청) 出岫浮雲似氣生(출수부운사기생)

만추에 서늘하니 새벽 바람이 청명하던 뭇구름은 기운차게 보이네.

雨歇南天鶯作嘯(우혈남천유부호) 霧收北渚雁飛聲(무수북저안비성)

비개인 남쪽 하늘엔 두리머리 짙을 지어 나르고 안개거친 북쪽 모래섬엔 기러기가 떼지어 나르고 있네.

天晴澤畔携竿釣(천청택반협간수) 同隈田疇拾穗氓(동난전주습수맹)

하늘은 맑은데 못가에 낚시대를 놓은이와 사우고 날이 따뜻하니 논두렁엔 사람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고있네.

枯葉蕭蕭飄落地(고엽소소포락지) 江邊暮景靄難成(강변모경화난성)

니뭇잎은 바람에 날려 땅에 떨어지는데 강변의 저녁 경관은 한복색 그림으로 담기가 어렵구나.